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58회 탐라문화제 결산

축제 구간 집중화 효과... 민속경연 점검 필요

동문로~용진교 행사장 구성
청소년 참여행사 열기 높여
향유자 아닌 축제 주인공으로

역대 최우수 수상작 참가 논란
산지천 설치물 장기적 고민을

야외 행사가 대부분이라 날씨 덕을 봤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지난 13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짓는 탐라문화제다.

2017년부터 제주시 원도심인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으로 옮긴 탐라문화제는 이번엔 아이들부터 동호인까지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장면들이 많았다. 반면 전통문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 제주도와 제주예총이 주최한 제58회 탐라문화제를 돌아봤다.

▶역사문화 걷기·굿즈 판매·해병탑이 세워진 동문로에서 용진교까지 방문객들이 한눈에 축제를 조망하도록 행사장을 구성한 점이 통했다. 산지천을 끼고 양쪽에 부스를 세웠고 탐라광장 특설무대, 산지천 무대, 북수구광장,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로 축제 구간을 좁히고 집중화했다.

탐라문화제(옛 한라문화제)에 대한 추억을 안은 중장년층 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제주어축제, 학생문화축제가 전통문화 맥 잇기를 중심으로 했다면 청소년 문화행사는 댄스, 밴드, 노래 등 오늘날 10대들의 문화를 표출하는 자리였다. 갖가지 체험, 플리마켓과 더불어 개막식 전부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산지천 주변 역사문화 걷기 행사 등 축제를 즐기며 원도심을 발견할 수 있는 행사도 운영했다. 축제장에

서 판매된 '탐라문화제 굿즈'는 좀 더 정교한 준비 과정을 거쳐 제작된 엠블럼을 반영한다면 친근한 탐라문화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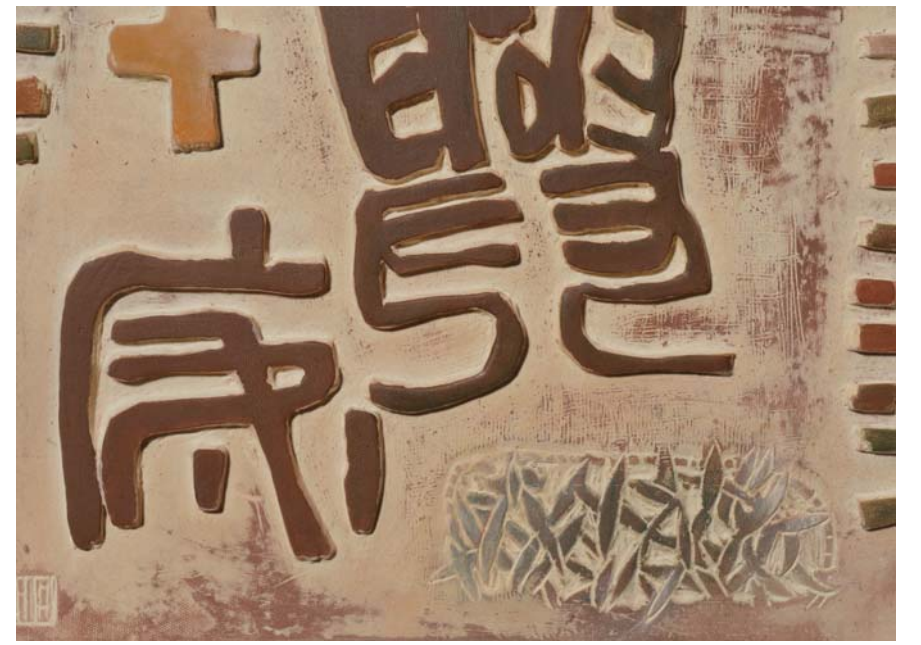
▶개막 주제공연 무개갑 약해-탐라문화제의 성과로 꼽히는 전통유산 발굴은 계속됐다. 제주시·서귀포시 걸공·민속예술 경연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몇해 전 최우수 수상작이 경연에 참가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적어도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서귀포시 두 행정사에서 발표한 작품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때다. 걸공, 민속예술 작품을 내놓는 지역마다 '고유의 색'이 점차 희미해진다. 지역이 나오는 만큼 해당 마을에서 연출자를 양성하고 고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1회성 출연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랜 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도 뒤따라야 한다.

대형 기중기를 이용한 첫날 개막식 '공중 부양 퍼포먼스'는 삼성신화를 소재로 바닷길을 상징하는 배가 등장하는 등 작년보다 진일보했지만 '깜짝 이벤트' 이상은 없었다. 주최 측이 밝혔던 주제 공연 제목은 개막 직전에 달라져 있었다. 산지천갤러리를 채운 국제문화교류전은 전시 성격이 불분명했다.

기양 예산을 들여 설치된 행사장 조형물이나 무대를 폐막 이후에도 활용하는 주장도 있다. 탐라문화제 기간만 탐라문화광장이 '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곳에 문화가 스미도록 준비 단계부터 설계하자는 것이다. 예산에 가까운 축제인데도 고정된 행사장 하나 없는 현실에서 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전선희기자



양상철의 '흥재안(興在安)-흥겨움에 평안함이 있네.'

제주옹기에 내려앉은 글과 그림

서화융합예술가 양상철
심헌갤러리 기획초대전

이번에는 그의 글씨와 그림이 흥과 만났다. 그릇이나 도판 위에 직접 쓰고 그려 음·양각으로 파내거나 무작위로 주물러 즉흥 도조 작품을 빚었다.

제주의 '서화융합예술가'인 한천 양상철 작가. 제주시 아라동 심헌갤러리가 기획한 '제주의 색을 담다' 첫 번째 전시로 그를 초대했다.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흥으로 글·그림 빛다' 전이다.

그동안 즉흥적인 표현기법과 하이브리드적 예술성을 펼쳐온 그는 이번에도 흥을 마음껏 다루며 열린 작업을 보여준다. 제주인의 생활과 함께했던 제주 옹기의 붉은 색상을 주

색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도자예술의 세계로 이끈다.

도예가인 심헌갤러리의 허민자 관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제주의 토속적인 옹기색상이 현대적인 예술가의 감각과 표현 방법에 의해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력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가인 태생으로 중학교 시절 소암 현중화 선생에게 서예를 배운 양 작가는 제주대에서 건축공학 석사(건축디자인)를 받았고 한문행초사로 한국서기협회최초대작가상을 수상했다. 필획의 울동과 무작위성에 관심을 갖고 초서를 중심으로 창작해 오던 그는 20년 전부터 서예의 대중성과 시대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의 064)751-2281. 전선희기자

가을 바람 타고 춘향이 가락 흐르네

권미숙 판소리제주지부장
내일 만정계 춘향이 발표회

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를 이끌고 있는 소리꾼 권미숙(사진)씨가 만정계 춘향이 발표회를 연다. 이달 16일 오후 6시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이 그 무대다.

만정은 우리나라 최고의 판소리 명창이었던 김소희 선생(작고)의 호다. 권미숙 지부장은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 문화에서 2017년부터 만정계 춘향가를 익혀왔고 지금은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를 만든 권 지부장은 그동안 강산제 심청가, 미산제 흥보가, 강산

제 수궁가, 김세종제 춘향가를 완창했다. 판소리 단가 '만덕가'와 '제주가', 제주민요 '제주아리랑'도 창작, 발표했다.

이날 공연에는 제주국악관현악단 악장인 이상명 교수가 호흡을 맞춘다. 발표회에 앞서 전주대사습 살풀이 대통령상 수상자인 이서영씨의 살풀이가 마련된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문의 010-3033-8425.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문화가 쫓지

가장축제 봉개동 탐라상

제58회 탐라문화제 마지막날인 지난 13일 개최된 제주문화가장퍼포먼스에서 '자원순환형 생태마을 봉아름'을 선보인 봉개동민속보존회가 제주도지사상인 탐라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은 도내 읍면동 민속보존회가 참여해 치러졌다. 탐라상에 이은 한라상(제주도지사상)은 오라동민속보존회(조선의 얼 조선태), 성산읍민속보존회(성산도 액막이 걸공)가 차지했다. 대회장상인 백록상은 일도2동·이도1동·이도2동·삼도1동 민속보존회에 각각 돌아갔다.

멜로디다모르 정기연주회

멜로디다모르 첼로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가 이달 15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피첸하겐의 '아베마리아',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하이든 곡 협연은 군포프라임필 수석, 위로앙상블 리더인 윤석우씨가 맡는다. 멜로디다모르 첼로앙상블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예지영, 이현지, 김진, 주희정, 서지은, 안율가, 고현주, 이미애 첼리스트로 구성됐다.

북방아시아 국제포럼

(사)문화다움이 이달 17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북방아시아 국제문화포럼 '2019 트리 오브 컬처'를 펼친다.

이번 포럼은 문화다움, 몽골 국립문화예술대학, 러시아 브리야트 국립 동시베리아문화대학 간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유목가치에서 본 글로벌 이슈-교육, 평화, 생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앙상블, 제주빌레앙상블, 대평이촌계 해녀공연단 축하 무대가 이어진다. 문의 02)364-2992.

전시실 대관 기간 조사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이 지난달 19~26일 3개 전시실 이용 만족도 설문 결과 대관 기간을 지금처럼 7일(철수·설치 1일 포함)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에는 미술 분야 등 이용자가 64명, 관람객 14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79.3%는 '현행 유지'를 택했고 20.7%는 기존보다 늘어난 '2주 대관'을 선호했다. 관람객들은 '현행 유지'가 67.3%였고 '2주 대관'이 32.7%로 나타났다.

제주문예재단 성희롱 처리 조사 청구

지난 10일 감사위에 제출
성과급 지급·공식 사과도

제주문예예술재단이 이사장 명의로 지난 1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관련 규정 위반 및 인사위원회 운영의 부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은 지난 8일 '피해자를 지지하고,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을 바라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일동'이 낸 입장문(본보 10월 9일자 8면) 내용을 수용한 결과다. 제주문예재단 직원들은 해당 입장

문에서 "성희롱 사건을 발단으로 제기되어 온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현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조직차원의 2차, 3차 가해가 계속되는 등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제주문예재단 이사장과 인사담당 부서는 이같은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공식 사과와 성과급 지급에 나섰고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도 진행했다.

제주문예재단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 혁신안은 직원들이 입장문에서 요구한 대로 10월 31일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서귀포시 미래비전 토론회

일 시 | 2019년 10월 20일(일) 18시 ~
장 소 | 서귀포 칼호텔 1층 크리스탈 연회장

주 제

문화도시와 마을문화에서의 청년의 역할

주 최 | 서귀포시
공동주관 |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 세부내용

소요시간(120분)	진행순서	주요내용
18:00~18:05	5	사회
18:05~18:15	개회사	● 참석자 소개
	격려사	● 양성욱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축사	● 양윤경 서귀포시장
18:15~19:00	발제 (3명)	●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문화도시(15분) 이한호 1930 양림살롱 대표
		● 서귀포시 문화도시에서 청년의 역할(15분) 이광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장
19:00~19:40	토론 (3명)	● 제주 공정여행(15분) 부석희 평대리 마을신문 편집국장
		●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리해문 서귀포시문화도시 추진위원
19:40~19:55	15	● 강동완 구역리 마을 이장
		●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
19:55~20:00	5	질의응답 폐회

함께하는 청년! 행복한 동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연합청년회
회장 양성욱